

특 집

#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자



전 동 용  
(본회 회장)

양돈산업의 길잡이인 「월간양돈」지가 지난 1979년 7월 1일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이번 7월호로서 어언 창간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 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전 양돈인을 비롯 학계, 연구기관, 업계의 관계자 및 바쁘신 가운데도 옥고를 보내 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간양돈」지는 그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돈인의 대변자로서, 양돈 농가의 진정한 반력자가 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간양돈」지가 양돈 전문잡지로서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폭넓은 참여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본지는 양돈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모든 일에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양돈산업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부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세한 경영구조를 면치 못하였으나 그동안 양돈농가의 끊임 없는 노력의 댓가로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양돈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보여지며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반복된 양돈경기의 불안정은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쳐 왔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주지의 사실로서 앞으로 우리 업계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소임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도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지를 모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밀려오고 있는 내외의 압력으로 부터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양돈인의 중지가 필요하며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참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돈회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돈회관의 건립은 양돈인 스스로의 힘에 의한, 양돈인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에 양돈인 모두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여 차질없이 계획을 완수하여야 되겠으며,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양돈인 스스로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을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양돈회관 건립이야말로 그동안 전 양돈인이 고대하던 숙원사업으로 이의 성공적인 수행은 양돈사에 길이 남을 일이며 양돈산업의 힘찬 도

**“막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야만 가능”**

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돈인의 결집력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원동력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축산업계를 선도하여 축산부국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주식청약 대회를 개최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양돈업의 제반 현안문제에 관하여 격의없는 토론과 정책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어떤 일부분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어집니다.

작금의 우리 업계를 둘러볼 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양돈인들은 앞으로의 경쟁사회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양돈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량종돈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량종돈을 확보하여 원가절감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종돈능력검정소를 설립하여 종돈개량 사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돈개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능력의 종돈을 확보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첩경입니다.

**둘째,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양돈경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알맞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과 자율적인 수급기능을 발휘하여 수급계획에 의한 출하조절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계획적인 경영에 의한 무리한 증설로 인하여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째,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소비패턴을 창조**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의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돈육 가공품과 요리방법을 개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질 좋은 상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이 소비촉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현재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급기야는 현재의 시장도 타 상품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요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곧 양돈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네째, 획기적인 정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산업이 고도화,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행되어 가는 것이 현대산업의 흐름이므로 우리 양돈업계도 우리 스스로가 양돈산업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발굴해서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 제공하여 채택·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양돈에 관한 정책만은 양돈인의 손에 의해 입안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발전된 양돈 전문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발행인으로서 다짐드리며 여러분의 폭 넓은 제안이나 현장 체험수기 및 알찬 내용의 투고를 기대하며 양돈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